



박철홍 전남매일 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맹과 지혜의 밝은 기상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굳센 기운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꿈과 희망이 샘솟도록 넘쳐나는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인년을 맞아 전남매일을 비롯한 골드클래스㈜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독자와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골드클래스㈜와 계열사는 지난해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골드클래스㈜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비롯해 보성군 이웃사랑 성금, 광주 장애인 이동 지원금,

광주서구민 한가족 나눔 후원금 등 지역 취약계층과 장애인 단체에 3억 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전남매일 주최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전남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 트롯경연대회' 본선을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어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새해 임인년에도 골드클래스㈜와 계열사들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봉사뿐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지역민 여러분!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4-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와 공직자를 뽑는 데 모두의 이목이 쏠릴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대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광주와 전남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과 광주 군 공항 이전, 구간 경제조정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전남매일은 호랑이의 강인한 정신으로 정도를 걷는 언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

니다. 이를 계기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호남의 선택이 곧 역사의 선택

지방선거 또한 광주·전남이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같은 기회를 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지역민들이 더욱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슴 벅찬 기대로 새해를 맞은 만큼, 기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갈등과 분열을 쓸어내고 희망의 의지로 머리를 맞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인년을 알리는 붉은 해가 힘차게 솟았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장엄한 일출을 보면서 떠나없이 한 해 소망을 기원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매일을 비롯한 골드클래스㈜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독자와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따뜻한 공정한 사회,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이웃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지역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골드클래스㈜와 계열사는 동반자로서 기업이 정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인공지능 기반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영산강물길 따라 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영암·목포를 연결하는 광역 경제·생태·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정부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 스마트 핀 시티'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특급호텔 유치,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AI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입점, 무등산 접근성 향상 등 도시경쟁력 제고 및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방·일선방직 부지개발과 무등산 신앙파크호텔 공유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광주컨벤션센터를 광주의 랜드마크로 신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이어 제2의 대규모 광주형 일자리 투자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의료,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을 일깨워 미래산업 메카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에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임인년 새해를 좋은 일이 구름처럼 물러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고향사랑 기부금법·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등 현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전남예산 1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올해 국고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4,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께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우리 도는 올해를 한데 평양 시대를 여는 '신해양·친환경 수도

신해양·친환경 수도 건설 전남 미래100년 준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으려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의 미래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공동체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일상회복지원금, 청년문화복지카드, 농어민공익수당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가 보살피는 복지기둥대 등 도민 행복시책이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한층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는 2022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광주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정책중심의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혁신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교육, 결혼, 취업, 주거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촘촘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자치구 경제조정 등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

현안사업 해결 최우선 서민경제 살리기 앞장

를 내며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광주형 3대 뉴딜 사업과, 광주형일자리 안착 등 여러 중점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입법을 통한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생활권과 문화, 경제구조 등을 공유하는 광역 공동체로서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서·남부권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축으로 도약하도록 광주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광주시의회를 통해 실현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경제회복 견제와 감시 의정활동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58명의 도의원 목표는 향하는 길에서 생기는 고난과 장애를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는다는 이환위부의 자세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인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광주교육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배움에 있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리방역지원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와 비슷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적 연대를

학생 모두 주인공 되는 광주교육 실현에 앞장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치와 협치를 꾀우겠습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자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마을과의 협치를 통해 '모두의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빈틈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는 신입생 입학준비금(초 10만 원, 중·고 25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도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AI·SW교육을 강화하고, AI교육 선도학교(34교)를 운영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기후위기 환경·생태교육도 강화합니다. 학생 선택중심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4교), 선도학교(48교), 교과특성화학교(7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겠습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지난 한 해 전남교육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누적인 학생들의 기초학습 결손과 학력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육력 회복, 미래교육 대전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교육자치 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핵심정책이 교육 전반에 구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회복 전면 추진과 진로교육 강화로 교육력을 키우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인 학생들의 학습, 정서, 심리적 결손 해소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기초·기본학력 내실화

전남형 미래교육 플랫폼인 '전남메타스쿨'을 개통해 실시간 쌍방향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전남 공공형 유소년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전남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 등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전남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화에 대비해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SW교육과 연계한 창의융합형 미래교육과정을 특화해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학교-가정에 이르는 '전남교육광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작은 학교 통폐합 위기와 지방교육재정감축 등 전남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